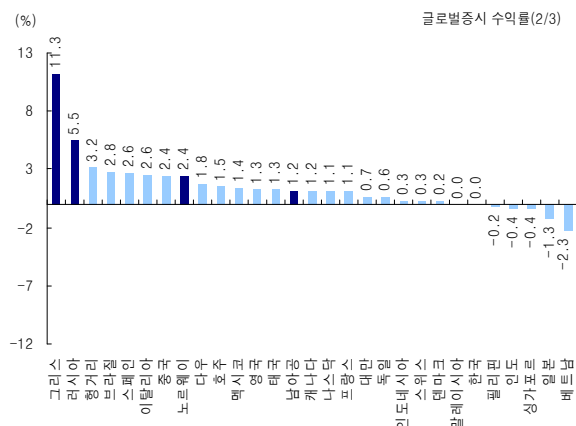


화기애애, 외국인 수급 단기 호재

1. 금일 KOSPI, 글로벌 증시 동반 상승에 동참할 것



■전일 글로벌 증시 동반 강세

- 1) 그리스 채무재조정 협상 관련 불확실성 해소 (그리스 증시 +113% 급등)
- 2) 국제유가 추가 급등(4거래일 연속 상승). BP 설비투자 13% 감축 발표 (러시아, 캐나다, 노르웨이 등 원유 수출국가 증시 강세 + 전 세계 에너지업종 동반 강세)

■전일 MSCI KOREA(EWY US Equity) +0.8%, KOSPI 200 Futures +0.7%

- 위험자산 선호 강화, 금일 국내증시 외국인 수급 매수우위 흐름 전개 예상

2. 일본 국채 10년물 급등(일중) → 엔화 추가약세 한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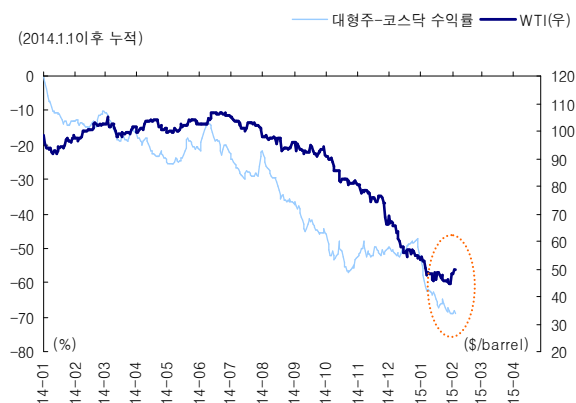
■엔/달러 환율 추가상승 기대심리 약화, 글로벌 위험자산 동반 랠리 불구, 엔/달러 환율 소폭 하락 마감

■전일 JGB 10년물 입찰 수요 부진으로 국제금리 급등 → 엔/달러 환율 & 니케이 동반 하락

■5일 JGB 30년물, 13일 5년물, 17일 20년물 입찰계획 예정 시장 관망심리 지속되는 동안 엔/달러 환율 추가 상승하기 어려운 상황

■엔화 추가약세 한계는 국내증시 외국인 수급에 후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

3. 대외주 추가 상승 시도 전망



■연초 이후 거래소 대형주 대비 코스닥이 강세를 나타내온 핵심원인은 매크로 불확실성(국제유가 급락 및 달러화 초강세)에 따른 외국인 수급부재

■따라서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제유가 급등 + 달러화 약세 조합은 대형주의 외국인 수급관점에서 단기 호재요인

■물론, 달러화와 국제유가의 추세적인 방향전환을 논하기엔 불확실성이 잔존하기 때문에,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("외국인들이 적어도 더 팔지는 않을 것이다" 정도에서 만족)

4.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?

■금일 KOSPI, 글로벌 증시 동반 랠리에 동참할 수 있을 것

■단기관점에서, 코스닥 대비 코스피 대형주 중심의 상승흐름 전개 가능성이 높음

- 1) 매크로 불확실성이 일시적으로 완화되며 외국인 수급이 개선될 전망이다,
- 2) 최근 연가금의 대형주 중심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기 때문

■다만, 아직까지 달러화와 국제유가의 추세적인 방향전환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, 외국인의 수급의 강한 매수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움. 지금수준에서 "더 팔지는 않는다" 정도 수준에 만족

■KOSPI 1,920 ~ 2,000pt 박스권 트레이딩 관점 유지

본 자료는 고객님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해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. 본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나, 제공되는 정보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을 당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. 모든 투자의사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라며,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분쟁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,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, 복제, 인용, 변형할 수 없습니다.